

여성 심질환의 치료 전략(총론)

심뇌혈관질환이 무엇인지 근거에 기반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질환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예방 관리의 중요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

홍 경 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머리말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여성의 사망률 1위는 심장질환이다.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 성별 사망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여성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 명 당 121.9명, 심장질환은 63.7명으로 2위이다.

그러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성 질환의 사망률을 합하면 123.2명으로 암보다 높아 우리나라 역시 심혈관계 질환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하였으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진단, 치료 및 일, 이차 예방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 심질환에 더 나아가 심뇌혈관질환이 무엇인지 근거에 기반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질환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예방 관리의 중요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제는 여성 심질환의 “A to Z”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국내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황을 알아보고 우리의 인식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 심질환은 여러 측면에서 남성과 다르다. 단지 성(sex, biological aspect)의 문제가 아니라 gender(cultural aspect)의 개념을 포함한 사회, 문화적 배경과 환경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성 특유의 위험인자(임신, 출산, 그로 인한 합병증, 폐경 등)와 관련된 위험도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여성의 경제적 여건, 여성과 관련된 오랜 관습, 교육, 의료기관 이용 등의 사회적 측면을 이해함으

로써 남성과 다른 많은 부분이 존재함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여성 심질환을 알리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04년 미국심장학회를 주축으로 “Go Red for Women” 운동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지속하며 여성 심질환의 위험을 극복하고, 심뇌질환을 퇴치하고자 그들의 경험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며, 특히 의료 환경이 열악한 저개발국이나 취약층을 대상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한심장학회 산하 여성 심장질환연구회를 중심으로 여성 심질환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많은 환자와 일반인들은 여성 심질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지하더라도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성 심장질환연구회는 홈페이지(womensheart.or.kr)를 개설하여 환자와 가족을 위한 건강한 식사와 운동 지침서, 여성 심장 건강에 대한 최신 리뷰 등을 실어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하고자 하며, 환자를 돕고, 교육하고, 치료하는 일선 의료인들이 접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내 여성 심질환에 대한 국내 학술자료를 게재하였고, 2020년 12월에는 국내 첫 여성심장질환 교과서를 발간하였다.

여성심장질환연구회는 중점 사업으로 여성 흉통 레지스트리를 구축(2011년 6월)하여 여성 심질환의 국내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많은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 심질환의 임상적 특징, 위험인자, 남성 심질환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1월 ‘대한민국 중년 및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성 심장질환에 대한 인지도 조사’는 국내 여성의 심질환에 대한 인

지도, 여성 심장병 정보 습득의 정도 및 편의성, 생활요법 시행 등에 대한 현주소를 알아보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주기적인 인지도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물은 여성 심질환의 예방 관리에 대한 개선 사항과 취약점을 확인하여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에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인지도 개선뿐 아니라 질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킴으로 궁극적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여론 조성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는 대상이 되는 일반인과 의료계만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2021년 7월 개최된 ‘여성 고혈압의 체계적 국가 관리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는 여성 심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개인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전략이 수립되도록 학회, 국회, 유관 정부 부서 및 관련 단체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였다.

주제의 마지막 부분에는 10여 년 전에 시작한 여성 심질환에 대한 첫 걸음부터 그동안의 자취가 KoROSE 레지스트리 및 주요 연구 결과로 소개된다.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으나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지금까지의 활동과 연구를 밑거름으로 앞으로 국내 여성 심질환의 유병률, 임상 유형(여성 심질환의 특성), 치료 및 예후, 또 더 나아가 여성 고유의 위험인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여성 심질환의 심각성과 교육,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이번 주제를 대하는 수련 과정의 전공의, 일선에서 어려움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는 개원의 선생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여성 심질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는 바이다.